

# 계란출하 직장기 정착으로 경쟁력 강화

□ 정리 / 김동진 기자



△ 분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회원들이 모여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계**룡산 자락을 배경으로 충남 논산, 공주일대에 서 채란업을 경영하는 산란계 농장들은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과 인접해 있으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계란공급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논산산란계분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간간히 친목형식으로 모임체가 있었지만 이렇다할 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보부채로 인해 판매되어지는 계란가격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히는가 하면 생산자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려하지 않아 서로간에 불신만 늘어가는 형편이었다.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동운씨는 기존에 친목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모임체를 '96년 7월 계우회로 활성화 시켰고 보다 공신력을 키우기 위해 이듬해인 '97년 10월 14일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논산분회로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분회 설립 초기에는 회원들

서로간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 환과 단합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통해 양계에 경험이 많은 최상 만씨의 자문을 받고 노재관 총무와 김지성씨(홍보담당)의 힘을 빌어 분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갔다.

장동운 분회장은 후장기제도와 2~3중시세를 없애기 위해 악덕상인을 척결하는 일을 최 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들의 힘을 빌어 시세에 따라 자주 옮겨다니며 유통을 흐리게 하는 상인들을 공개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 식으로 받을 못붙이게 하였다. 또한 현찰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외상거래를 하는 상인들도 악덕상인으로 간주해 배제해 나갔다.

나아가 홍성, 천안 지역과 연계하여 충남계우회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분회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 자체적으로 난가를

고시하여 상인들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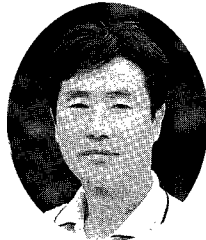
생산되는 계란은 대전에 80%, 논산, 공주 지역에 20%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가격 고시에 따른 DC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정 상인들이 농장을 출입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아가며 덤핑을 칠 필요가 없는 등 시비거리가 사라져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같은 지역에 있는 비회원들에게도 난가와 다운폭을 알려주어 함께 공생공존해 가면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논산채란분회도 IMF한파의 영향을 받아 설립초기 23명이던 회원이 18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채란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당 평균 2만수로(5천수부터 10만수까지) 사료구입부터 계란판매에 이르기까지 현찰거래를 하므로 다른지역에 비해 부채비용이 거의 없어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이 무창계사를 신축하는 등의 무리한 시설투자를 지양한 것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생산비



△ 장동운 분회장



△ 노재완 총무



△ 김지성 홍보담당

절감을 위해 회원 100% 전원이 서울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회사측과 품질에 대해 문의하고 기술지원도 받고 있다. 사료의 공동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사료비에서 1%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분회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논산분회에서 할 일이 산재해 있지만 먼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파란을 수거해 판매 상인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농가의 수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논산훈련소 등 집단 급식소 등에 단가가 맞는 범위에서 계란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좋은 병아리를 구입해 직접 중추를 육성하여 키우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품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추를 시들이는 회원들이 많아 각종 질병과 생산성 저하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 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중추농장을 건립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우리분회가 무너질 정도면 우리나라 채란업이 모두 붕괴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논산 채란분회는 35만수로 타지역보다 적은 규모의 살림이지만 회원들의 단합과 의지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다. **양계**

● 회원명단	
고문	최상만
분회장	장동운
총무	노재완
홍보담당	김지성
고정숙, 남궁상용, 박길중,	
박종구, 박중현, 박치중,	
유석영, 윤형중, 이양,	
이광재, 전병혁, 정덕순,	
조성준, 최상식	